

# 템플스테이, 국민 정신건강 중심으로

## 문화사업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탁 평가

한국 전통문화체험의 대표 아이콘으로 부상한 템플스테이가 사회공익적 가치에 있어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평가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이 최근 발간한 <템플스테이의 사회공익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위탁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조사, 연구한 것으로 기존 만족도 조사와는 달리 템플스테이의 사회공익적인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한 결과라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템플스테이는 관광, 교육, 정신건강, 사회소통, 복지 등 5가지 사회공익적 가치 평가에서 전체 평균 4.57점(7점 만점)으로 그 가치성을 인정받았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정신건강이었다. 특히 세부 항목인 '심신의 휴식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5.51점)와 '자아성찰(5.38점)'가 현실적 성취도에서 높게 평가됐다.

또한 한국적 전통문화체험, 생태 친화적인 식생활 습관 형성, 한국 전통문화 및 역사 이해 증진 등도 템플스테이가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중심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중요도 조사에서도 템플스테이는 지속가능한 문화 콘텐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건강에 대한 가치가 6점대 가장 높았으며, 전통문화 홍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7점 만점 중 4.57점 받아

### 정신건강 성취 가장 높아

### 기대도 역시 고무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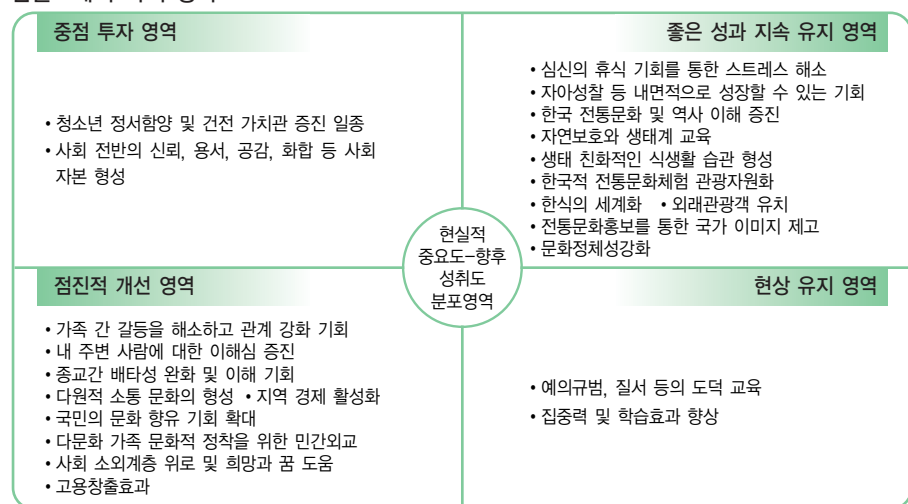
### 정서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 특화형 사찰 개발 필요도

또한 연구보고서는 사회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템플스테이가 사회 소외계층을 보듬는 문화복지의 구현체로 거듭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연구를 진행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향후 템플스테이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소년 정서 함양 및 건전 가치관 증진'과

템플스테이 가치 항목



'사회 전반의 신뢰, 용서, 공감 등 사회 자본 형성' 등의 가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사찰이 대부분 전역의 자연환경에 있는 만큼 아토피 어린이, 천식 등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향후 공익적 가치 향상에 상당히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템플스테이 사회 공익 운영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사찰별 특화 모델 구축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정기적 자문위원의 구성 △심리 상담 전문 인력 양성 △지정 여행사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템플스테이 사회 공익 인정체계 구축을 위해서 △템플스테이 박람회 개최 △한·중·일 불교 및 국내 이웃종교와의 정보 교류 사업 △한류 스타를 활용한 홍보 사업 등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연구조사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보고서, 학계 논문 등의 분석과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진행됐다. 특히 템플스테이 전문가와 실무진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해 결과의 신뢰도를 높였다. 신종일 기자

## 전국 비구니 스님 간화선을 논하다

### 선원선문회, 담선법회 개최

비구니 스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선(禪)에 대해 논한다.

전국 비구니 선원선문회(회장 육문)는 8월 23일~26일 3박 4일 동안 경북 군위 법주사 청화선원에서 '전국 비구니 선원 담선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담선법회는 간화선 수행의 전통을 계승하고 수행 풍토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계종교육원은 담선법회에 참가한 비구니 스님 중 2~3급 승가고시를 준비하는 스님의 경우 인종점수(12시간 30점)를 부여한다.

한편 선원선문회는 지난 2003년 서울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선 수행 특강을 연 이후 매년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지한 스님 등을 초청해 수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담선법회는 선에 대한 이치를 서로 공부하고 참선도 함께 병행한 법회로, 고려시대 초기부터 3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주관해 보제사에서 거행한 바 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 D-50 대장경 축전, 본격 홍보 돌입

### 부산역 힐링 콘서트

### 대학생 발대식 등

### 다양한 행사 '눈길'

2013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 50여 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돌입했다. 2013대장경축전은 경남도, 합천군, 해인사 공동주최로 9월 27일부터 11월10일까지 합천군 가야면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와 해인사 등지에서 열린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위원장 홍준표, 이하 조직위)는 8월 9일 부산역 특설무대에서 '동감(同感)에서 동감(動感)으로'를 주제로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사전 홍보를 위한 힐링음악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공연에는 부산 지역 팝아티스트들이 결성한 부산보이스파워밴드가 젊은층들이 즐겨 부르는 곡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에 앞서 조직위는 본격적인 자원봉사 체계를 가동했다. 조직위는 8월 8일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이윤길 탐방대의 전국투어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자원봉사 소양교육도 실시했다.



8월 9일 부산역에서 진행된 대장경 힐링콘서트

이날 출정한 이윤길 대장경 탐방대는 창원대, 영남대, 전남대 등 영호남 대학생들이 3개 그룹 16명으로 구성된 축전 전국홍보와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 UCC 제작, 자전거를 활용한 다중집합 장소 방문 홍보, 축전 성공기원 응원메시지 촬영, SNS 홍보 등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 조직위는 5일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한국걸스카우트경남연맹(박선희 경남연맹장)과 자원봉사 등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김이수 집행위원장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 경남도에서

열리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축전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조직위는 8일 해인사 뒤편 가야산의 9세기 신라 마애불 참배길을 공개하고 축전 기간인 9월 27일부터 45일간 일반인의 출입을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야산 해인사 마애불 입상은 가야산 해발 1000m 지점 길옆 바위에 양각으로 새겨진 높이 7.5m, 너비 3.1m 크기의 불상이다. 제작 시기는 9세기 통일신라시대 무렵으로 추정하고 있다. (055)211-6269 노덕현 기자

## SBS '궁금한이야기 Y' 사과 약속

### 김태성 제작본부장, 9일 조계종 사과방문

불교평화와 왜곡 보도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SBS 시사프로그램 '궁금한이야기 Y'와 관련해 SBS가 공식 사과했다. 8월 9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한 SBS 김태성 제작본부장은 총무부장 원담 스님을 만나 왜곡 보도에 대해 사과방송과 책임피디 문책성 인사 단행 등을 약속했다.

김 본부장은 "(제작진이) 표현의 미숙함으로 아쉬운 결과를 낳았다"며 "앞으로 불교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많은 부분을 헤아려 다른 방송에서 더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원담 스님은 "많은 불자들이 이번 방송으로 상처를 입었다. 앞으로 불자들이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은 SBS 측에 공식적 사과 방송, 책임자 문책, 사과방문, 지역케이블 IPTV 재방송 방지 등에 대해 요구했고 SBS는 동명이인의 사진을 잘못 게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과방송과 책임피디 문책성 인사 단행 등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한 조계종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스님을 도박 관련 스님인 것처럼 사진을 잘못 방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과방송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단에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쳐 사과방송 여부를 결정하고 재방송 관련에 대해서도 절차를 거쳐 해결해 줄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아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 동국대, '만해학' 강좌 개설

### 2학기 교양강좌부터

동국대가 1회 졸업생인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사상과 정신을 집중 강의하는 '만해학 강좌'를 개설한다.

동국대는 2학기 교양강좌로 '만해와 불교의 민족운동', '만해와 불교사상', '만해와 님의 침묵' 등 3개의 교양강좌를 개설하기로 했다.

강사진으로는 만해의 민족사상과 불교사상, 시 등의 문학을 수십년 간 연구해 온 대표적인 학자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만해 사상과 불교 부분은 김광식 동국대 전자발전·문화재콘텐츠연구소 연구초빙 교수가, 만해의 문학정신은 윤석성

동국대 경주캠퍼스 인문학부 교수가 각각 맡는다. 동국대는 이들 강좌를 유튜브를 활용해 일반에 무료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만해학 강좌 개설은 지난 4월 만해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조성된 만해마을이 동국대학교에 기증된 데 이어 2013년 만해축전 개최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마련됐다.

'만해(한용운)학' 강좌를 기획한 동국대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전승우 교수는 "만해 스님의 민족정신과 불교정신 및 문학에 담겨 있는 사상을 학생들에게 심어 주기 위해 교양강좌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불교단체 국정원 규탄 시국회의 발족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등 12개 불교계 단체들이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불교시국회의'를 발족시켰다.

시국회의는 8월 8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력이란 국민대중의 권력을 선택적으로 정부에 위임한 것이며, 위임받은 정부는 항상 국민의 뜻을 살피며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불교의 '민주'이고 '정법'이라고 강조했다.

시국회의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거친 소용돌이를 겪어왔는지, 뼈아픈 고통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그 위에 또 다시 역사를 거스르고 헌법을 모독하는 정치권의 퇴행과 추락을 방관하게 되면, 점차 대한민국은 전례 없이 극심한 갈등과 투쟁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해 △



불교단체들은 8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회의를 발족했다.

국정원, 경찰 최고 책임자 처벌 △국정원 및 경찰 전면개혁 방안 제시 △정부의 대국민 사과 △납치준 국정원장 파면 등 6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후 스님과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장 등은 서울광장에 있는 민주당 전막담사를 방문했다.

이아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불교광장은**  
한국불교의 발전과 종단 중흥을 위해 종도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더 듣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하겠습니다. 제 살을 도려내는 것 만큼 아픈 질책이라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종도여러분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새 토양의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자성과 쇄신! 불교 발전의 길을 종도 여러분과 함께 걸어하겠습니다.


불교광장

※ 종도여러분의 의견을 이메일과 팩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락처 ☎ 02)723-9341 (불교광장 사무국)
■ 이메일 bulgyo2013@hanmail.net
■ 전승 02)723-3303